2018학년도 동계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국내 농장동물복지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방법 탐사

애니웨이(ANIWAY)

목 차

Ⅰ. 서론 3

1. 탐사배경

2. 탐사주제 및 목표

Ⅱ. 본론 - 기관탐사 및 인터뷰..... 6

1) Thunen

2) 아폴테른 농장 견학

3) 미그로

4) AgroVet-Strickhof, ETH Zürich 농장방문

5) 케임브리지 대학 도널드 브룸 교수

6) 뿌리와 새싹

Ⅲ. 결론..... 43

I. 서론

1. 탐사배경

‘모든 사람들을 세심하게 대하지 않는 사회에서 하층민의 삶은 가장 고달프다. 동물이 누리는 권리는 그 사회가 가지 섬세함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오영욱의 <왜 중국인은 시끄러운가> 중 한 부분이다. 동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동물 바로 위의 계급인 사람들의 삶이 개선된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짐승의 사정까지 봐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가 높은 권력에 있는 자들과는 한참 동떨어져 동물과 가깝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오판이다. 동물시장의 모습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처한 환경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농장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 오직 인간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해 ‘농장’동물이 된 동물들의 권리를 인간들이 자체적으로 지킬 리 만무하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에 공장식 축산으로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의 축산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행복해 보이는 동물들의 그림이나 사진이 걸려있는 마트의 진열대 위에는 깨끗하고 먹음직스러운 고기들이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싸여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그 고기들을 집어 들며 어떻게 요리해먹을지를 고민할 뿐 그 고기가 어떻게 길러져서 어떻게 도축되어 그 자리에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 아래 농장동물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끔찍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엄청난 양의 약물을 주입 받고 있다. 생산하는 농장주들은 동물들이 도축될 수 있는 무게가 될 때까지 ‘죽지만 않으면’ 된다. 필요한 시기까지만 살아남아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되어주면 그만이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각 단계는 매 단계마다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다. 매년 구제역으로 대표되는 각종 전염병이 이들을 덮친다. 감염 위험으로 팔 수 없게 된 동물들은 땅 속에 매장된다. 폐기 대상이 된 동물들은 채 목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어떨 때는 의식이 온전한 상태로 생매장된다. 매장된 동물들로 인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같은 골치 아픈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장동물이 일정 정도의 무게까지 살아남거나, 또는 일정 정도의 달걀을, 그리고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들이 도축되고 포장되고 완제품이 되고 유통되는 과정의 매 단계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품은 언제 어디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한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탐사팀원들은 공장식 축산의 농장동물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왔다. 강의나 동아리 활동으로 농장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팀원들은 글로벌 프론티어를 통해 더 다양한 관점으로 동물복지를 인식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하기로 결심했다. 농장동물들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의 안전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매번 폭탄이 터질 때만 두려움에 떨다가 잊을 것이 아니라 폭탄이 터지는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잘 정리된 진열대 위에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포장의 달걀과 우유, 그리고 고기를 집어 들기 전에 우리는 공장식 축산의 생산과정과 문제점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위험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을 대체할 안전한 축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값싼 편리함 대신 우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보다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 탐사주제 및 목표

탐사 팀의 주제는 국내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팀원들은 사전 조사와 관련 활동을 통해 현재 농장동물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장동물들이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육되고 있고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은 제도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부족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사 팀은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대한민국에 맞는 복지 농장 모델을 제시한다. 닭의 경우, 방목사육방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방목을 하지 못 하는 농장도 있다. 따라서 방목 사육을 권장하되 방목을 하지 못 하는 농장에게는 다단식 사육방식 혹은 공동 방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제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농장동물도 동물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면서 농장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현실적 방안을 연구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농장동물들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나아가 농장의 사정을 고려한 새로운 농장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제도개선을 위해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탐사팀은 지난 5월 이정미 의원님을 만나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에서는 동물복지 포럼이 이루어질 정도로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았지만 공

장식 축산 폐지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 법안이 시행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동물복지 선진국을 탐사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했고 농장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했는지 조사할 것이다. 결국에는 동물복지 농장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을 밝혀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법안을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가격이 더 비싼 동물복지 농장 식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탐사팀은 동물복지 농장인 '청솔원'을 방문해 가격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농장주의 고민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적 마케팅을 통해 소비를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동물복지 마크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케이지 사육을 하더라도 동물복지 마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허술하다. 이는 실제 방목사육을 하는 농장의 의욕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잃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방목사육 농장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낮춘다. 따라서 동물복지 마크에 엄격한 기준을 연구하여 직접 설정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농장 상품의 고급화를 이뤄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농장 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한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했고 계란 수급을 불안정하게 했다. 이때 동물복지 농장의 상품이 관심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충제 계란 파동의 주요 원인이었던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계란을 여전히 소비하고 있다. 동물복지 농장이 확산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필요하다.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해결책으로 살처분이 행해지고 있다. 이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대신 근본적인 해결책은 동물복지 농장임을 알린다. 이처럼 동물복지 농장 식품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임을 알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 감수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위 목표들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내에서도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비건 간식 제공, 비건 데이가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권 동아리 '솔찬'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또한 환경과 인간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탐사팀의 대동제와 전시회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윤리적인 공장식 축산의 실태와 동물복지농장의 고충을 소개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며 설명을 들었고 동물복지농장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통해 몇몇 학생들은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탐사팀은 아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과 그에 맞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예를 들면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되는 달걀이 비윤리적이고 우리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장식 축산의 대안인 동물복지농장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족한 제도에는 관심이 적다. 따라서 탐사팀은 농장동물복지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동물복지농장이 확산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유통 방식, 정부의 지원, 제도 개선을 글로벌 프론티어를 통해 독일과 스위스, 영국의 농장동물복지를 연구한 후 대한민국에 맞는 대안 책을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글로벌 프론티어 탐사를 하면서 동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탐사팀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이동할 때 유기견 해외 입양을 돕는 '유기견 해외 이동 봉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탐사 기간 동안 '팜스테이'에서 숙박을 함으로써 농장 내 동물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해 동물복지를 위한 활동들을 직접 실천할 것이다.

II. 본론

-기관탐사 및 인터뷰

1) Thunen

1월 14일 독일 투넨

유기농법을 연구하는 기관 중 하나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우리는 이 기관의 책임자이신 제롤드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전반적인 독일의 동물복지 체제 상황과 투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었다.

>농장방문

대부분 북부 독일에서는 농장주들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장소는 밀, 자원 등의 다양한 작물을 통해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가축도 기를 수 있다. 가축은 소, 돼지, 닭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장을 보길 원한다면 우리가 유기농 법을 사용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기농 법이란 '어떻게 모든 문화들을 수렴시켜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가'를 말한다. 여기서 여러가지 기능은 토양의 지방(기능), 물의 정화, 생물 다양성 등을 의미하는데, 특히 생물 다양성적 측면은 원래 야생동물로 살아왔던 가축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길러지며 나타나는 것들에 집중한다.

또 여러분은 '다중 기능성'(multi functionality)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첫째로는 농업으로 만들어지는 식량(food)들이다.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수도의 정화를 유지하고, 화학적으로 좋은 기능을 하는 흙이 오염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경 또한 포함된다. 관광객들이 특별히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종종 찾아오는데 이것도 놀랍다. 독일인이 똑같은 독일을 방문하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방문하기도 한다.

보통 봄이 주 사육기로 한국과 똑같이 4월~5월경이된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보통 아무것도 재배

하지 않는다. 농장주들은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거의 200헥타르의 땅을 1명의 농장주가 관리한다. 유기농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은 농장에서 많은 작물을 키우고 많은 수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다. 이것을 오히려 앞에 말했던 땅의 다중기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평야, 나무, 흙을 모두 훼손시키고 나중에 이것을 바꿀 수도 없다. 당신은 항상 다중기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일하는 곳을 보여주겠다. 당신이 농업을 시작했을 때, 이것들이 1000헥타르로 거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계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600헥타스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연구 기계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농업에서 기계가 의미하는 것은 매우 적은 노동량을 필요로 하면서 우리가 많은 양의 음식을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기농 법으로 향하는 간단한 농업의 시작이다. 기계가 없다면 우리는 유기농 법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유기농 법을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환경을 지키고 동물을 지키고 충분한 돈을 벌기를 원한다.

농장에서는 많은 기름을 필요로 한다. 보통 농장들은 석유를 이용하지만, 이 기계들은 식물기름을 이용해서 작동한다. 이 기계로 식물기름을 만들어내고 또 식물기름을 이용해서 기계를 작동시킨다. 이것이 다중 작물재배시스템이다. 이 작물시스템은 다른 기계들도 필요로 하는데 그 예시로 잡초를 제거해 해충을 방지하는 이 기계이다. 기계적으로 잡초를 제거해서 해충을 없애면 없앨수록 더욱 편리한 농업이 이루어지게 한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해충을 없애는 것이 너무 강경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는 이런 경우 항상 서로 이해를 하며 연구를 한다. 우리는 서로서로 항상 의견이나 문제들을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항상 한가지의 정답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가지나 그 이상으로 정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조언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토론을 하며 제시한 의견을 증명해야만 한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아냈는지 말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계는 두 의견의 토론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작물을 키우는데 적합하다고 판단

되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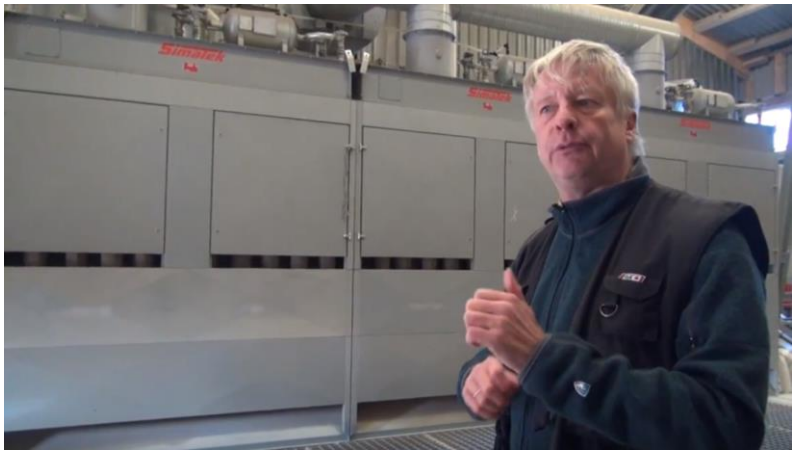
>트랙터

이것이 식물기름 트랙터이다. 이것은 바로 가동시킬 수 없다. 엔진이 차갑기 때문에 그것이 데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농업을 할 때 한국은 더 많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여기(독일)에서는 매우 적은 사람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자극한다(motivate). 당신은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15000유로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3000~18000유로 사이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농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농장을 가졌을 때 약 200헥타르의 땅을 혼자 농사지으려고 한다면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한다. 우리는 여성, 남성 또는 대학생, 대학생이 아닌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 비율이 50대 50정도이다. 작거나 여성처럼 근육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계들을 운전하도록 한다. 약 6년정도 이 곳에서 트레이닝(어떻게 농장을 운영하는가)을 한다. 왜냐하면 기계들을 다루면서 자그마한 실수라도 할 경우 당신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용적인 트레이닝으로 한국과 거의 비슷하겠지만 지식(머리), 기술(손), 마음가짐(심장)이 세가지를 집중 교육한다. 대학생과 같이 이미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이제 그 지식을 기술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학습한다. 그리고 농장을 운영하는데 자부심을 가지도록 자극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이루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후에 이 커다란 기계로 점프해서 저 안으로 들어가 작동시킵니다. 여성과 남성 상관없이 지식을 갖추고 실용적 기술을 갖추고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한 달에 약 1000유로정도를 벌게 된다. 이것은 기계를 다루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소식일 것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을 위한 음식, 가축들을 위한 먹이, 여러 목적으로 쓰이는 에너지를 위한 연료, 그 이외의 것들. 이 4가지는 바이오매스 생산물들이다. 100% 사람들을 위한 생산물도 있고, 사람과 동물 50대 50을 위한 생산물도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영양소이다. 영양소는 유기농 법을 위해 구분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영양소와 해충들에 대한 연구를 마쳤다. 우리는 매우 오랜 기간동안 20,30, 40년동안 땅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영양소의 중요함을 안다. 영양소의 중심적인 문제점은 급성장과 비료의 과다 사용이다. 특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작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땅에 영양소가 부족하게 된다. 우리는 순환체계를 이루며 유기농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 기계는 땅속의 영양소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계이다. 땅에 물을 주고 식물기름을 사용하면서 땅 속의 영양소를 최적화한다.

이것은 평범한 농업용 기계이다. 하지만 우리가 유기농업을 사용할 때는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가지 씨앗을 구분해서 심는 것을 이용했다. 콩과 같은 큰 씨앗과 밀과 같은 작은 씨앗으로 구분해서 우리는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자금이 없어지고, 그러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농업을 하며 이용하는 식물기름을 사용하는 기계들이다. 우리가 동물복지를 논할 때 우리는 가축과 농장(작물을 기르는)의 위치를 결코 분리해서는 안된다. 동물들은 이런 작물들이 자라는 땅에서 영양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곳은 당신이 들판에서 재배를 한 후 오는 곳이다. 당신은 곡물들을 분류해야만 한다. 유기농법을 사용하면 많은 잡초들이 곡물과 섞여서 수확될 것이다. 이곳에서 콩과 같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작물과 사람이 이용하는 작물, 가축들이 이용하는 작물 등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가축들에 집중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용하는 작물도 함께 재배하곤 한다. 작은 밀(쭉정이)같은 것들도 함께 분류한다. 여기서 분류된 작물들이 시장에 나가게 된다. 식품시장(food), 먹이 시장(feed) 두가지의 시장으로 나가는 작물들은 별로 차이가 없다.

당신이 가축들에게 먹이를 줄 때, 동물복지에서 지켜야할 한가지 규칙은 좋은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축들에게 주는 먹이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약처럼 작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기계는 매우 작은 마이크로단위의 비타민, 필수영양소 등을 먹이에 첨가한다. 약이 아니라 이미 작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기농 법을 사용하며 그들에게 이런 영양소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유기농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축들을 학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100%의 유기적 식단이며 우리는 가축들에게 최적화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먹이를 생산하려 한다. 소 같은 경우 그들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 성분을 땅에서 곧바로 얻을 수 있지만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곧바로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땅에서 얻는 것만으로 괜찮을 수는 있지만 최적 수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최적수준을 맞추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600헥타르의 땅에서 1헥타르는 나쁜 땅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고 땅마다 다

른 법이다. 때문에 우리는 통에 모든 작물들을 넣고 섞는다. 좋고 나쁨의 비율이 섞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먹이를 줄 때 먹이의 영양소 기준을 알아야한다. 때문에 모든 먹이들을 관리하고 먹이의 상태(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거나) 좋건 좋지 않건 가축들에게 최적 수준의 영양소를 공급해야 한다. 이 작업 또한 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한 사람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다. 1인당 기계를 하나씩 맡아 관리하기만 해도 먹이의 영양소는 최적화된다.

>축사

이곳은 움직이는 소들을 볼 수 있는 장소이다. 이곳은 최적화된 상태의 장소이며 당신은 이곳을 제외하고는 어미소와 뛰노는 송아지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송아지들이 젖을 빨기 때문입니다. 송아지와 어미를 떼어놓으면 우유의 품질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는다. 이것은 동물복지에서 중요한 한가지 이슈 중 하나인데 이 관리 축사(소들이 머무는 공간)를 전 자동적인 시설 속에 소들이 함께 모이게 만드는 것이다. 보통 2일이 지나면 모든 소들을 분리시킨다. 우리는 현재 한 축사에 50마리씩 정도의 소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는 뿔이 있는 소들과 없는 소들을 비교해 관찰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소들에게 뿔은 무기이다. 유기농 법은 가축을 학대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에 뿔을 자르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뿔은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관리 축사에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이다. 그들의 뿔이 무언가 갈갈이 해쳐도 우리는 고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괴롭힐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가, 모두 가족으로 만들어 싸우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것을 연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작은 소비자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미소와 함께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동물복지 생산물이냐고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 이 토론이 사회적 관점까지 확장되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지만 확실히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도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미소와 송아지를 분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곳은 먹이에 차이를 두고 연구 중인 공간이다. 먹이를 저장하고 많은 차이점을 찾는 중이다. 가축들에게 가능한 가장 적합한 식단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농장에 해를 끼치는 생물을 가두는 철창

이것(철창)의 중요한 점은 비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농장일을 할 때 새, 벌레, 쥐 등이 문제가 되곤 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해로운 영향을 주는 동물들에 대한 동물복지 체계를 논의했다. 예를 들어 새 같은 경우 잡은 후 이곳에 잠시 가둬 두었다가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면 다시는 돌아와 해를 끼치지 않았다. 죽이지 않아도 그들은 돌아와 해를 가하지 않았다. 쥐 같은 경우 보통의 농장주들은 그들을 죽이곤 합니다만, 우리는 그저 놓아준다. 몇몇의 사람들은 쥐들이 끼치는 물 오염, 병 등을 걱정하며 쉽게 죽여버리지만, 그들도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매우 적은 사람들을 여기서 보았을 것이다. 1명의 농업인이 혼자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고 100마리의소를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즉 800000kg의 우유를 혼자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말 좋은 수입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소의 모든 것을 데이터화 하는 것이다. 소는 많은 정보를 컴퓨터에 가지게 되고, 우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빛을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괜찮다, 주의를 요한다, 또는 이 소에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등의 정보 쉽게 얻을 수 있다. 그저 버튼을 누르거나 배터리를 가는 등의 수고만 해도 소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동물복지에 힘을 주자면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유기농 법에서는 900~1100L의 우유를 얻고 일반적 형태에서는 그보다 적거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우유를 얻을 수 있다. 두 가지 형태의 농업에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더 나은지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내부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름이 되면 가축들을 풀어놓고 기른다. 또 우리는 (독일) 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때문에 이렇게 생산된 우유는 나쁜 작용을 가져오지 않는다. 유기농 법은 동물복지, 먹이, 환경, 흙 비료, 등의 여러가지의 가치를 얻게 된다. 한국에는 이런 소들이 별로 없다고 들었다. 하얗고 검은색의 젖소나 황색의 소들이 대다수이지만 여기 있는 소의 종이 전 세계적으로 우유를 생산하는데 가장 많은 힘을 쓰고 있는 종이다.

>어린 송아지들이 생활하는 이글루

우리는 항상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절대 50 50 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곳(이글루)에서는 새끼들이 지내게 된다. 또 함께 기르는 것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곳에서 함께 자란 새끼들이 아까 본 축사에서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서로 사회화를 하기 때문에 잘 싸우지도 않고 함께 지내는데 더 적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보이는 몇몇의 소들은 뿔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소들의 뿔을 자른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들이다. 몇몇 농업인들은 뿔을 가지고 있는 소들은 너무 위험해서 뿔이 없는 소들과 함께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는 유전적으로 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들과 뿔이 있는 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뿔로 소들에게 가끔 상처가 나긴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긁힘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들이 걱정하는 많은 병들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 거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고 관리했는가 가 관건이다. 중요한 것은 공간과 사람의 행동이다.

여기에는 임신한 소들이 있고 아기를 낳고 2일 후에는 그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 곳에 들어온 송아지들은 어미소에게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어미를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자동적인 시스템으로 아기소들이 어미에게 갈 수 있거나 못 가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장소외에 있는 송아지들은 이 안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어미에게서 우유를 얻는 잠시간만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후에는 원하는 데로 행동할 수 있다. 이 송아지가 충분히 이 시스템에 적응하면 아까 그 이글루에 송아지를 데리고 나간다. 이 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우리는 이들이 너무 많은 우유를 먹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것은 어미를 아예 떨어뜨려 기르는 것보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위생적으로는 이글루 시스템이 더욱 좋다. 박테리아에서 송아지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물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생에 신경쓰기 더 어렵지만 이 시스템을 선택했다.

>우유를 짜는 공간

이곳은 소들의 우유를 짜는 공간이다. 보통의 우유 짜는 공간은 어둡고 춥고 좁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소들은 우유 짜는 작업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우리는 우유를 짜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간에 신경을 썼다. 겨울에는 추운 바람을 막아서 25도를 유지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우유를 짜는 사람들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오히려 소들이 이 공간을 나가기 싫어할 때도 있었다.

>아기돼지들의 축사

이 장소에는 매우 어린 돼지들이 있는 공간인데 지금은 추워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아기돼지들이 땅을 파거나 눕거나 밥을 먹는 것 모두를 체크한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아기돼지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낸다.

>돼지 축사

돼지들은 여름에 나올 수 있고 이들의 행동도 우리가 체크한다. 돼지들과 새끼들은 만날 수 있다. 나는 독일인들이 실제로 돼지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돼지들은 자주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서까지 돼지를 보지 않는다. 그저 TV에서 본 돼지의 모습만 보고돼 지를 알 뿐 거의 대다수가 실제를 보지 않는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잠시간만 그에 대한 논의가 생길 뿐 실상 사람들은 더 싼 값에 고기를 사기를 바랄 뿐이다. 동물복지는 자연과 인간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가축의 이야기 이기 때문에 직접 가축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가축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체크한다.

<투넨 인터뷰>

Q. 투넨에서 농장 동물 복지를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트레이닝이 따로 있나요?

A. 없다. 100% 리서치를 위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독일 농업부 장관에 소속되어서 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조사를 하는데 쓰인다. 동물 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인간친화적 3가지를 모두 고려한다. 좋은 수입, 좋은 물건, 좋은 환경 3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3가지는 종종 모순적이지만(싼 음식과 동물 복지와 같이), 우리는 이 3가지를 결합하려고 노력한다. 가축은 독일에서 경제적, 윤리적, 환경에게 주는 영향적인 면에서 중요하다. 다른 기관들에서도 식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축들의 동물 복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를 한다.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부가 다음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조언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농장들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농부들이 동물 복지에 더 신경 쓰게 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들기도 한다.

Q. 이런 연구를 하는 데 힘든 점이 있나요?

A. 있다. 제일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좋은 동물 복지고 어떤 것이 나쁜 동물 복지인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유기농 농부들은 동물 복지를 위해 돈을 낸다. 이것은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는 없던 것이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주 낮은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다. 동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유기농을 위해 더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지불하는 소비자의 의지가 있고, 그것을 만족시키려는 농부의 의지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현 시스템에 있는 동물들을 통합해서 보려는 이유이다. 제일 힘든 도전은 사회적인 태도와 기대이다. 이것은 국가별로도 모두 다르다. 어떤 것이 동물 복지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뚜렷하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자연과학과 사회학 둘 다와 연결짓는다. 결국, 유기농법은 동물 복지를 지키겠다는 사회와의 약속인 것이다. 어떤 것이 좋은 동물 복지인가. 이것이 어려운 질문이다.

Q. 동물 복지 물품이 비싼 데도 그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비자들이 돈보다 동물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많이 알리는 것이다. 동물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동물 복지가 더 좋은 질을 가진 제품이라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사람들이 뭘 사는지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낮은 질의 싼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적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독일인 중 50%는 Heavy Organic Eater이고, 30-40%는 Okay, 20% sometimes, 나머지는 never이다. 우리는 유기농산물들을 많이 사는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도 한다.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유기농산물을 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good feeling을 느끼고 싶어서다. 단순히 동물 복지를 넘어서 윤리적인 생각도 담고 있다. 그래서 농부들도 동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노력을 한다. 또, Active Group(환경 단체)들의 활동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현재 독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그런대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이 정부에서 우리와 같은 기관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증명되고 안전한 유기농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가 이러한 농장들의 노력에 반응하고 있다. 이건 세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변화이고, 그렇기에 다음 세대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동물 복지와 유기농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그래서다. 우리의 습관은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 미래에는 식탁에 고기가 없거나 최소한으로만 올라올 것으로도 기대한다. 지금만 해도 20년 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20년 전에는 채식을 하는 것이 단체생활에서 실례였지만, 최근에는 그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일 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처럼 동물 복지 문제도 세기에 걸쳐 천천히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분명 변화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회가 결정할 것이다.

Q. 공장식 축산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공장식 축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어떤 말을 하려는

건지는 알겠지만, 수요에 따라서 큰 공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 건강한지 등의 문제일 것 같다. 굳이 '공장식 축산'이라는 말을 정의하자면,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들이 몰려 있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기농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장식 축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유기농업이 공장식 축산에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 해도, 그 많은 동물들이 전문가의 손에서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난다면,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것을 공장식 축산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일단 내 입장에서는 공장식 축산이라는 것을 없애기가 힘들다고 본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으나, 농장의 사이즈와 농장 안의 동물의 수가 동물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사이즈에 상관없이 농부가 가축을 사랑하고, 더 잘 대우해준다면 좋은 동물 복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만 해도, 가축을 키우기 위해 허용된 공간이 얼마 없지 않은가? 이 좁은 공간에서 가축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그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에서는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무엇이 크고 작고, 무엇이 공장식이고 아닌지를 구분 짓는 것은 상당히 불명확하다. 게다가 현재 상황에서 공장식 축산을 없애는 어떠한 새로운 대체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도입하려면 농장주들이 아예 새로운 농장을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를 최소 10-20년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새로운 농장을 짓고도 적은 수의 동물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조차 힘들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기관들은 공장식 축산의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혹은 방식의 농장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도 공장식 축산은, 한마디로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Q. 저희가 한국에서 찾아가 본 자유 방목 목장에서는 소규모 목장의 판로문제와 제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한국의 농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좋은 예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간이 작아 어쩔 수 없이 큰 스케일의 농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좋은 점들도 있다고 생각은 한다. 독일과 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서 농업을 하기에 좋은 부분들이 많다. 아무튼 한국의 빠른 발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런 빠른 발전에서 좋은 부분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데,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 글로벌 마켓에서 더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격과 동물복지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축을 잘 다루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다. 큰 스케일의 농업을 진행하되, 그것을 잘 다루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가축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두가지 질문은, 우리가 과연 가축을 두어야 하는가? 와 어떻게 가축을 다루어야 하는가? 이다. 한국에서 동물 복지 문제를 신경 쓰는 것은 당연히 다루어 져야 할 문제이지만, 지하수나 공간 문제 등의 심각한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Q. 한국에 동물 복지 농장이 늘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급하게 필요할까요? (시민들의 인식과 기술 중에)

A. 언제나 둘 다이다.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다. 아까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적인 혁신도 언제나 중요하다. 가축 동물 복지에서도 먹이, 공간 등 기술 부분을 제외할 수가 없다. 또한 동물 복지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도 생각하려면 기술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 유기농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것은 현재 유럽에서도 매우 큰 도전 중 하나이다. 동물 복지 문제를 생각하자면 이것은 high input high output의 문제가 된다.(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한국에서 이를 도입하려면, 땅의 부족함을 생각해야 한다.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인 농업 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 집약적인 방식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말이 안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물품들을 누가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농업에 쏟을 인력을 충분히 구하기가 힘들 것이다. 관련 직업과 전망을 늘리고, 생산성을 늘리고, 경제성을 늘려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과 관련된 일이 힘들고 더럽다는 이유로 하기 싫어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인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농부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회사에 들어가서 깨끗하고 정형화된 일을 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LG와 삼성 같은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 것. 그런 것 만을 추구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빠른 발전은 좋지만, 매우 위험하다. 교육에서의 수많은 경쟁과 취업 걱정에서 좀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경쟁에 빠져 뭔가 작고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건 동물 복지라는 한가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에서도 마찬가지다.

Q.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회의원에게 특별히 전달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A. 지금까지 대부분 말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해왔던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업의 방식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토양 오염, 대기 오염, 그리고 동물 복지 등의 모든 환경 문제들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가성비 있는 음식 제공, 농부들의 좋은 수입까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내가 이곳에서 농업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3가지 있다.

“Be proud to become a good organic FARMER. Be proud to become a good ORGANIC farmer. Be proud to become a GOOD organic farmer.”

유기농업의 도입은 천천히, 영원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이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갈 길이 먼 게 아니다. 걸어야 할 너만의 길이 있는 것이다. 독일이 많이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뒤처진다. 지금까지 발전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잃어왔다. 가축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아폴테른 농장 견학

기관소개 - 스위스 아폴테른에 위치한 이 농장은 돼지, 닭, 말, 젖소 등의 동물을 키우는 농장이다. 본 탐사팀이 방문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기 때문에 농장의 건물 안에 동물을 가둬 놓지만,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는 넓을 초원에 동물들을 풀어놓는다. 동물들은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 먹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스위스 내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소를 풀어서 키우는 농가는 많지 않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산악지대의 넓은 초원이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풀어놓고 키울 수 있다.

한국의 산악지대에는 넓은 초원지대가 별로 없으므로 동물을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한국에 실정과는 거리가 멀지만, 동물을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는 농장주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3) 미그로

1월 17일 스위스 미그로

<기업소개 및 선정이유>

스위스의 슈퍼마켓(coop)으로 약 650 개의 매장을 가진 스위스 최대의 소매 업체이다. 스위스 전역에 생필품, 축산물을 생산/판매한다. 스위스에서 육류 유통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스위스 최대의 유통 회사로서 미그로는 농장동물복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세워 농장동물복지에 힘썼다. 미그로에서는 실제 동물의 털이 들어간 옷을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배터리 케이지의 암탉에서 난 달걀 판매를 금지한 최초의 판매업체이다. 미그로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대부분 스위스에서 생산된 것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것들도 대부분 스위스의 동물 복지 규정에 따라 생산된다. 이외에도 양고기, 칠면조, 토끼 같은 육류는 수입율이 높지만, 타국의 공급자와 협력 하에 스위스 동물보호법에 따라 양육한 고기를 판매한다. 미그로에서는 법적인 요구사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의 동물복지 표준을 장려한다. 미그로 라벨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향상된 동물복지를 선보인다. 미그로에 유통하는 모든 생산자에게 엄격한 스위스 동물복지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위스 외부의 생산자에게 높은 동물복지 기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미그로는 독일, 헝가리, 프랑스의 100 개가 넘는 생산지에서 스위스 동물복지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전환하였다. 스위스의 규정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더 큰 공간, 일광 시간, 휴식 기간 등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미그로에 직접 방문하여 미그로의 동물복지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동물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운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스위스 시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동물복지 축산물의 실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한국에서 동물복지축산물 생산 판매량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업으로서 동물복지 축산물을 판매하는 데 앞장선 미그로에 방문하여 어떤 마케팅 전략과 판매 전략 등을 알고자 한다.

<미그로 탐방내용>

Andreas Schmidli
Animal Welfare Specialist

▲Andreas Schmidli / Animal Welfare Specialist - 동물복지는 워낙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동물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어느 분야에서든 동물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그로 소개

미그로는 스위스의 가장 큰 소매업체이다. 약 4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며 스위스 전역에 약 650개의 지점이 있다. 미그로는 다양한 비즈니스 유닛을 가지고 있다. 슈퍼마켓 외에도 약국, 화장품가게, 심지어 은행, 여행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특별화 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기생산라인, 치즈공장 등 다양한 생산라인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 유통 판매를 광범위한 범위에서 미그로가 관여하고 있어서 동물복지와 관련한 선택을 할 때 동물복지를 향상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실행하기에 더 유리한 것이다. 판매되는 물건들의 90%가 미그로의 고유 브랜드이며 미그로의 고유 상품이다. 미그로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건이 생산되는 방식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더 유리하다. 미그로는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그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항상 다른 기업, NGO 단체와 협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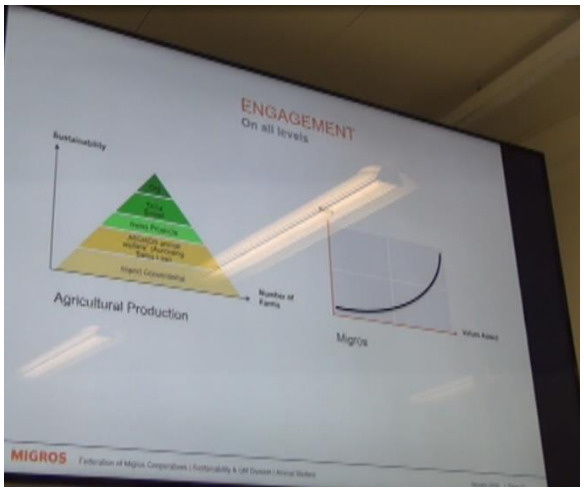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생산을 하는 것인 동시에 최소한의 배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우리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그로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여러 분야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포함한다. 경제, 환경, 사회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한다.

소비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동물복지의 일환일 것이다. 동물복지를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동물 친화적인 생산을 하는 농장이 그들의 생산품을 판매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소비자들은 wolters(strong willed, dictators, always get their way, wont take anyones shit, never wrong, always right, hard partiers)이다. 그들은 항상 육류생산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장주는 그의 노력에 합당한 돈을 벌어야 하며 동물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시장에서 소비자로서 물건을 고를 때는 대부분 동물이 생산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대신 가격과 맛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살지 결정한다. 시장에 가면 그들이 동물복지에 관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잃고 맛있고 싼 상품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의 싸고 맛있는 생산품을 사려는 욕구와 wolters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제이다. 소비자들이 시장을 떠나거나 집에 돌아가서 이 상품은 잘못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고기를 소비한 거야. 라는 결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미그로는 가장 기본 단계의 동물복지 기준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밑의 표에서 가장 아래단계의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소비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환경에서 자란 동물을 소비하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동물복지 여러 단계의 동물복지 축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소바자가 기본 수준 이상의 것은 추가의 금액을 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위 표와 같이 미그로는 5단계의 동물복지 레벨이 있는데 <import conventional-글로벌마켓에서 수입하는 것/migros animal welfare 미그로와 거래하는 해외 기업에 스위스의 동물법을 적용하는 것/swiss product-스위스에서 생산된 스위스법을 따른 축산물 /lable prudoction Terrasuisse- 스위스의 동물법보다 더 동물 친화적인 형태 스위스 기본동물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는 축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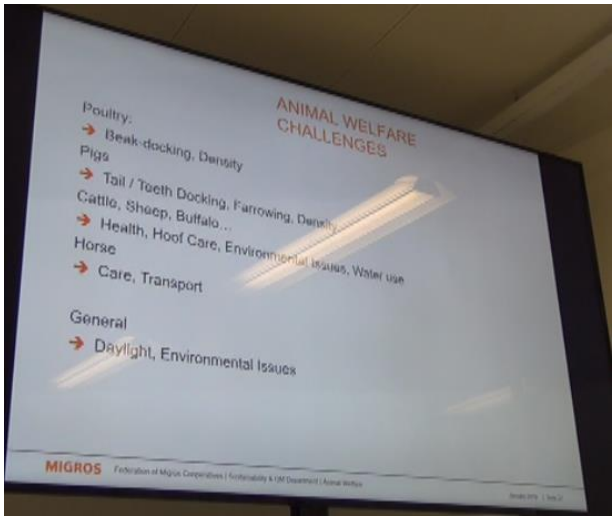
/organic level>가 그것이다.

미그로는 항상 위의 5단계 모두의 생산과정에서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모든 소비자의 욕구를 만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소비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동물복지 상품을 준비함으로써 상품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비자 각각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한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organic level의 상품 가격은 다른 단계의 상품보다 가격이 매우 높다. 우리는 모든 소비자가 가장 높은 단계의 상품을 살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많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아래 단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생산과정을 거친 것은 없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목표는 가장 기초 단계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전체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처음 우리의 목표는 import conventional 단계에서 벗어나 migros animal welfare가 가장 기본 단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무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정치적인 상황들에 따라 항상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생산과정을 거친 축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살라미 등 여러 상품 품목에서 미그로는 미그로의 동물복지 수준을 만족하는 생산 루트를 발전시켰다. 모든 품목을 migros animal welfare 수준으로 높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기본단계의 수준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Terrasuisse등 특별 기준을 만족하는 축산물의 양과 그 수준 또한 높이려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만족하는 농장과 파트너쉽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돼지의 동물복지 측면에서 특히 집중하는 것은 1)genetics유전적인 것 2)feedings 너무 많거나 적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균형 잡힌 영양분 섭취 3)health 아프지 않게 하며 약을 줄이려 노력한다 4)추적 가능성 UHF등 태그를 통해 생산된 과정 등을 알 수 있다 5)수송 6)processing optimization 이다. 1)스위스 돼지 품종을 사용하며 유전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한다. 케이지에서 돼지를 사육하기 때문에 돼지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없어 다리가 약한 것을 보완하려 한다. 2)많은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해 단백질을 필요이상으로 섭취하게 하는 것을 막는다. 3)항생제 등의 약을 줄인다.

미그로의 프로젝트는 항상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느 분야에서 발전이 필요한지를 연구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오염 등을 연구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동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어떤 것이 동물에게 좋은지를 연구하여 그렇게 하려 노력한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동물이 배출하는 가스가 많은지, 어떤 음식이 동물에게 맞는지 등등을 연구한다.

미그로는 농사, 동물의 건강, 먹이는 것, 수송, 도축까지 모든 과정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그로의 동물복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일단 처음에 동물복지단체와 함께 농장의 문제를 바라보고 필요한 것을 찾아낸다. 공급자에게 생산방식을 변화시킬 동기를 주고 공급자가 생산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산방식을 적절하게 바꾼 농장에는 특별 보상을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이 시스템을 확인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제3자인 점검자는 농장이 지속해서 생산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한다.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가 함께 지낼 필요가 없으면 동물이 서로를 해칠 일이 없으므로 이빨을 자르거나 뿔을 자를 필요가 없다.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놓인 환경이 그들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니 자해를 하고 다른 동물을 해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동물들에게 적절한 환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동물에게 좋은 것인지를 연구하여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그로는 때로는 동물복지 분야에서 개척자이기도 하다. 케이지에서 생산된 달걀을 최초로 금지한 소매업체가 바로 미그로다. 또한, bbfw에서 선정한 가장 지속 가능한 업체 1위에 뽑히기도 하였다. 미그로는 동물복지 등 지속가능성에 선구자 기업이다.

>인터뷰

Q. 지금까지 미그로의 동물복지 정책에 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미그로가 농장동물복지를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A.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에게 생산방식을 바꾸도록 처음에 동기부여하는 것/ 미그로의 기준에 알맞은 농장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Value-chain가치 체인[(고객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 및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는 기업 소속 직원의 그룹. 가치 체인 소속원은 마케팅, 회계 및 기타 기업 내의 부속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이 통합된 상태일 때 이 과정이 더 쉬웠었는데 예를 들어 가금류 농장의 보통 도살장에 소속되어 도살장이 얼마의 닭을 키울 것인지 어떤 사료를 쓸 것인지 등등을 결정합니다. 즉 농장들의 모든 과정이 도살장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말이다. 생산자들은 도살장에서 말하는 대로 이행합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소 생산의 경우 농부가 때때마다 다른 곳과 거래하기 때문에 때때마다 먹이고 싶은 것을 먹이며 소를 키웁니다. 소 축산농장이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금류 농장처럼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동기부여하기가 편합니다. 한 곳만 동기부여하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치즈 공장이 3개의 농장과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 3개의 농장만 동기부여하여 생산과정을 바꾸게 하면 되니까 변

화시키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가격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은 종종 추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왜 이러한 가격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납득하게 하고 사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단계의 동물복지 상품을 판매하여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그로에서 농장동물복지를 위해서 특별히 진행하고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우리와 거래하는 농장들에서는 아마 동물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동물복지법이 기반시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을 다루는 방법 등등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미그로는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Q. 왜 점점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가치에 우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그로에는 이런 상황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동물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많은 사람이 스위스의 동물복지 레벨이 이미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물 종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이 스위스 동물법의 장점입니다. 가까운 독일만 보아도 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스위스의 동물법의 가장 낮은 한계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꽤 높은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금류의 다른 나라에 비해 약 25% 더 넓은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닭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유기농의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 단계의 동물복지를 향상하는 것 또한 목표합니다. 물론 스위스에서 유기 농법으로 생산된 고기/ 높은 단계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며 생산된 라벨 붙은 고기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기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Q. 한국에는 돈을 위하여 공장식 축산법을 고집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결국, 축산업은 음식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사람들은 이 음식들이 허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 각각 사냥꾼이 되어서 직접 사냥을 하는 세상이었다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한 곳에서 생산해야 하므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욕구를 올바르게 충족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다른 돼지의 몸을 물어 상처입히거나 닭들이 서로를 쪼는 행동은 모두 닭들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필요한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스위스에서는 각각의 동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여 법으로 그것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의 개인 공간이 필요하며 그들이 밟고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여 농장에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닭의 경우에는 모래 목욕을 할 수 있는 모래, 올라서 설 수 있는 횃대 등을 일정량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에서도 최소한의 복지는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에서 농장동물복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나 도움을 주는 것이 있나요?

A. 일단 스위스 정부에서는 스위스 동물복지법에 맞지 않는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동물법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필수 사항들에 더하여 좀 더 엄격한 기준들을 만족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동물복지 농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석>

축산물의 동물복지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모든 단계의 축산물을 모두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진 소비자부터 동물복지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소비자까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추가금액을 내고서라도 동물복지축산물을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존재함에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없으므로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도 동물복지축산물을 소비하기가 쉽지 않다. 미그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동물복지를 추구하면서도 더 향상된 동물복지를 위해 돈을 더 지불할 수 없는 소비자까지 포용하였다. 한국의 기업들도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물복지레벨을 5단계로 나누었지만, 최하의 단계의 동물복지 수준을 점차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동물복지 수준을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모든 사람/동물이 최소한의 동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그 수준을 점차 향상하고 있다.

스위스의 동물법은 동물 종별로 동물을 연구하여 동물에게 필요한 개인 공간, 동물에 특성에 맞는 환경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두어 법 제정에 근거로 사용하였다. 법을 제정할 때 연구기관과 직접 소통하여 꼭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4) AgroVet-Strickhof , ETH Zürich 농장방문
1 월 17 일 AgroVet-Strickhof 농장방문

Magdalena Kurrig : Animal Nutrition-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막달레나는 동물의 사료를 연구하는 학생으로 본 탐사대에 농장 소개 및 견학을 맡았다.

농장 Agrovet Strickhof는 소를 중점적으로 키우는 농가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연구원 막달레나는 농가를 둘러보며 어떤 동물복지 시설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했다.

막달레나는 농장에 들어가기 전 신발에 비닐을 씌우고 동물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위생을 위해서였다. 작은 것 하나부터 동물의 환경을 신경 쓰는 농장의 가치관을 알 수 있었다.

▲농장 내에 설치된 이글루.

농장은 소들의 주거 시설부터 신경 썼다. 소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주거 환경을 달리했다. 태어난 지 2-3주 된 어린 소들은 이글루라는 시설에서 지낸다. 매우 어린 소들은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않아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글루에서 담요를 덮어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게 한다. 소들이 자라면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 외에는 다른 성인 소와 함께 집단에서 지내게 된다.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에는 따로 격리돼 관리받는다.

농장에는 여러 개의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방문한 첫 번째 우리는 78마리의 어린 소들이 있었다. 이곳에서 소들은 집단으로 생활한다. 소의 나이대별로 지내는 공간을 나눴는데 첫 번째 우리의 소들은 어린 나이대다. 이글루에서 나오면 이곳에서 지내게 된다. 자동으로 우유를 주는 시스템이 있어 소들은 원할 때 기계에서 우유를 먹을 수 있다. 소의 체형을 고려해 먹이 먹는 공간을 작게 만들었다. 다른 우리에 비해 물먹는 곳이 낮고 먹이 먹는 공간도 작다. 어린 소들은 이 공간에서 지내고 소들이 자라 키가 크면 다른 공간으로 옮겨 지낸다. 자랄수록 옆 공간으로 옮겨 지내는데 다른 우리의 먹이 먹는 공간의 크기를 달리했다.

농장은 소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고려했다. 우리의 문을 만들어 소들이 원할 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어린 소들은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문을 열어 소들이 나갈 수 있게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 있게 한다.

▲중간에 천장이 덮여있지 않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육장 모습.

좀 더 큰 소 우리의 다른 점은 천장이 중간에 뚫려있는 점이다. 막달레나 연구원은 동물복지 관련해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것을 통해 동물들은 오늘 해가 비추는지 비가 오는지 등 날씨를 알 수 있다. 송아지가 있는 곳은 감기에 걸릴 수 있고 몸이 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지붕으로 덮어놓았다.

▲먹이 공간과 쉬는 공간이 분리된 농장 모습. 휴식 공간인 뒷부분은 짚으로 덮여있다. 먹이를 먹는 공간은 소들의 이름으로 표시해 각자의 공간을 지정했다. 중간에는 브러쉬가 설치돼 소들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크기가 넓었는데 특히 먹이를 먹는 공간과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분리해 동물복지를 고려했다. 소들은 뒷공간으로 가서 누울 수 있는데 바닥에 짚이 깔려있어 눕기 좋게 했다. 짚 말고 다른 물질을 쓸 수 있지만 짚이 소에게 가장 편하다고 한다. 짚은 이틀마다 새로운 짚으로 교체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농장은 소들이 각자 누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먹이를 먹는 공간도 한 공간당 한 소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정해 소가 자신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것이다. 우리 중간에는 브러쉬가 있는데 브러쉬도 소의 복지를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소들은 브러쉬로 자신의 몸을 긁는 것을 좋아한다.

소들을 다뤄야 할 때는 우리에 설치된 장치를 이용해 최대한 억압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물을 다루거나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동물을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돼있는데 이 장치를 이용하면 소가 이동하지 못 하게 고정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수의사가 와서 동물을 다뤄야 할 때, 백신을 맞아야 할 때 등 무언가를 할 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농장은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먹이와 관련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단백질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먹이로 콩을 제공하는데 동물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단백질 요소를 찾고 있다.

소들이 여기서는 작아 보이지만 검은 소 옆에 직접 서 보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내가 소들이 3주 되었을 때, 그들을 처음 데려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각자 다 다른 이름들이 있다. 이 동물들은 내년 7-8월쯤까지 길러질 것이고, 그 뒤에는 이들은 고기를 위한 소들이기 때문에 도살당할 것이다. 그리고, 동물 친화적 시스템을 위해서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눕는 공간과 밥 먹는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우리들은 트여있기 때문에 좋은 우리라고 볼 수 있으며, 끝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바람을 막는 그물도 달려 있다. 그리고 눕는 공간은 먹는 공간보다 더 어둡게 해 놓았다. 우리 뒤쪽이 열리기 때문에 환기가 많이 필요한 여름에 우리를 활짝 열어놓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은 한 우리 당 10마리 정도의 동물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동물들이 지금 작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좀 더 있으면 그들은 지금의 2배의 크기로 자랄 것이다. 그들은 지금은 260kg-290kg 정도인데, 지금이 겨울이라 날이 춥기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누워있다. 여름에는 좀 더 멀리 눕는다. 이렇게 지금처럼 가까이 누움으로써 그들은 안정감과 따스함을 느낀다. 그리고 여기에는 5가지의 다른 먹이 그룹들이 있다. 첫번째 그룹은 대두를, 두번째 그룹은 누에콩을, 세번째 그룹은 호박씨를, 네번째 그룹은 미세조류를, 다섯째 그룹은 단백질 보충제가 없는 사료를 먹는다. 미세조류를 먹는 그룹은 코, 혀 등 모든 곳이 초록색이다. 다섯째 그룹의 경우 단백질 보충제가 소를 기르는데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그룹이다.

그 전에 보았던 농장들과 이 농장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을 먹는가, 혹은 낮은 울타리 등이 다른 점일 것이다. 각 동물마다 각자의 먹는 장소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연구 중인 주제이다. 예를 들어 Claude는 6번 문에서만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동물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각 동물이 얼마나 먹고, 어떤 것을 먹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 이런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각 동물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만들어 놓았다. 동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동물의 목걸이로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맞으면 문이 열려서 먹이를 먹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누가 얼마나 먹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매우 좋다. 어차피 이들이 내가 제공해주는 것만 먹기는 하지만, 다른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양을 알 수가 있다. 문이 잘 작동하는 지만 종종 체크해주면, 남은 먹이의 양으로 동물에게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도 바로 알 수가 있다. 만약 그들이 밥을 먹

지 않는다면 열을 재고 치료가 필요한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젖소들과 이들이 다른 것은, 아마 이들이 모두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 있는 젖소들에게는 뿔이 없다. 뿔은 소가 3주가 되기 전에 없앤다. 그 후에 없애려면 주의할 사항이 훨씬 많아지고 수의사도 불러야 하며 올바르게 마취도 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뿔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들이 아주 많다. 이 동물들은 우리가 몇 달 동안만 기르며, 젖소들에게 하는 것처럼 가까이 갈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뿔을 제거하지 않는다. 연구를 위해서 내가 가끔 가까이에 가기는 하지만, 그들도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어제 막 새로운 짚단을 받아서 행복해하고 있다. 내일 또 새로운 짚단을 공급할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스위스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독일에서는 동물들을 금속 바닥에서 키우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새 짚단을 깔아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 기뻐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닌다.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짚단은 이 동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적 혜택이다.

소들이 문 여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붙여 놓은 고무를 다 먹어버렸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아무거나 다 씹으려고 한다. 그래서 licking stone이랑 브러쉬를 놔뒀더니 너무 좋아한다. 브러쉬는 이 농장에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동물 당 하나의 feeding space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엄청 높은 동물 복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지 보통 유럽에 다른 농장들에선 이렇게까지 좋은 시설을 갖추진 않을 것이다.

이 소들은 임신한 소들이다. 인공수정으로. 스위스 태생 순수 혈통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이 엄선되었다. 11월전까지 이 소들은 방목되어 길러졌다. 이 소들은 짚을 많이 먹어서 뚱뚱하다.

소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서 자꾸 문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데 지금은 너무 커서 머리가 끼이는 데도 저런다. 아직도 자기가 아기인 줄 안다. 항상 누군가가 이제 끼인 소를 구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는 엄마는 다르더라도 모두 아빠는 같다. 우리는 여기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적은 유전적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똑같이 자란 어미 소와 똑같이 자란 아빠소를 통해 같은 시기에 태어난 30마리 정도의 송아지들을 얻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래서 최대한 같은 아빠를 가진 송아지들을 기른다. 이렇게 하면 같은 유전적 형질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송아지들은 꽤 행복해하지만 이들이 점점 커질수록 다루기 꽤 힘들어진다. 이곳을 너무 좋아해서 점프하고 달려들 때가 있고 자신들의 몸집을 생각하지 못하고 올 때가 꽤 있기 때문이다(위의 경우처럼).

이 송아지들이 자신의 문을 기억하나요? 처음에 송아지들은 학습을 받는다. 자신의 번호를 알고 이름을 안다. 하지만 가끔 송아지들이 문을 헷갈려서 다른 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들은 100% 자신의 문을 기억한다. 다른 문이 열리지 않으면 곧장 자신이 헷갈렸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문을 찾아간다. 또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잠글 수 있어서 송아지 마다 자신의 문만 열 수 있게 한다. 자신의 문이 아닌 경우 잠기게 된다. 처음에 이것을 먹이시간에 2~3일 정도 연습을 시키면 송아지들이 기억한다. 자신의 문이 아니면 열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자신의 문을 기억하고 이용한다. 최소한 60일 동안은 자신의 문을 기억하고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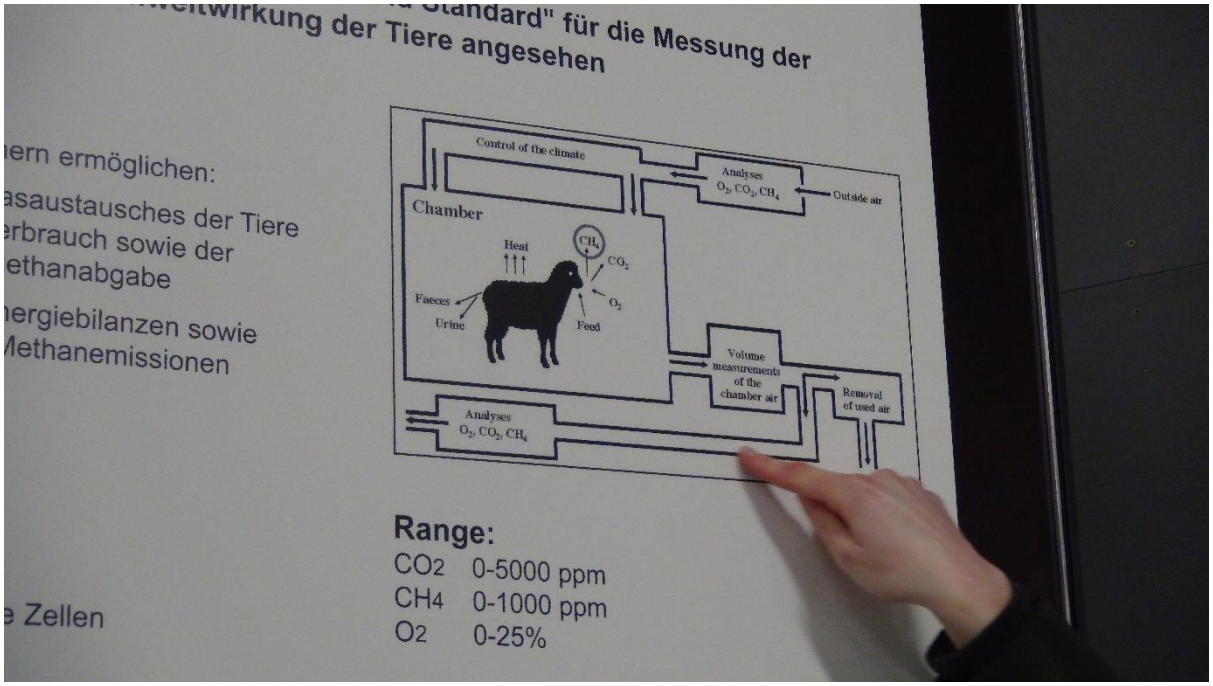
여기는 젊은 운전자(농기구의)들이 연습하는 공간이다. 위험하니 절대 이들의 앞이나 뒤에 가면 안된다.

이제 이곳이 젖소들의 공간이다. 여기선 이 소들에게 엄청 먹이를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도 소들이 누울 수 있는 공간과 먹이를 먹는 공간을 나누었고, 그 사이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층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밑에 있는 먹이를 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층을 만든 것이다. 소들이 이쪽(우유 짜는 기계)으로 걸어오면 이들은 가끔 졸려 한다. 우리는 자동화된 우유 짜는 시스템을 이용한다. 기계는 소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자동적으로 소의 젖을 짠다. 하루에 4번 정도 젖을 짜는 것 같다. 소들이 알아서 기계 안으로 들어오면 문이 잠기고, 기계가 젖을 짠 뒤 바로 나갈 수 있다. 여기서는 기계 속에서 무슨 상황이 펼쳐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람 시스템이 있어서 만약 정해진 소가 기계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알람이 울려 소가 기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여기서 또 연구를 하는데 소들은 서로 다른 먹이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동물이 어느 먹이를 더 선호하고 얼마만큼 먹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몸의 상태와 우유의 상태 등을 연구하는 조사단도 있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 지금 소가 들어가서 젖을 짜고 있는데, 젖을 짤 때 사람의 손이 필요없이 기계가 알아서 소의 젖을 찾아 자동적으로 우유를 짠다. 사람은 앞에서 소를 관리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저 쪽에도 이런 기계가 있고 각각 12마리씩 젖을 짜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작업이 아니라 자동시스템이 알아서 이런 일을 해준다. 여기에는 먹이를 밀어주는 로봇도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이가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저런 로봇들을 이용해 먹이가 소들에게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방지한다. 이곳의 작업들은 사람들의 수고를 덜기 위한 것이 많다. 이들이 먹이를 먹는 공간은 한 칸 정도 더 띄어 있어서 배설물들과 다른 층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동물들의 건강에 더 좋다. 우리는 점차 더 많은 젖소들을 이곳에 데려올 생각이다. 안에서 볼 때 천장이 막혀 있어 약간 답답해 보이지만, 이곳의 젖소들은 동물복지를 위해 이들이 원할 때 플라스틱 커튼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쪽 밖을 보면 소가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솔)이 있다. 소들이 이 밖으로 나와서 브러쉬 밑에 서면 브러쉬가 움직여 소를 긁어준다. 소들이 이걸 매우 좋아한다. 이 브러쉬는 소의 피부, 털 건강에 좋으며 피부의 기생충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소들이 이것을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복지적이다. 동물복지를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보이는 것과 같이 소들이 자유롭게 안팎을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추워서 나와있는 동물이 별로 없지만 여름, 가을, 봄에는 소들이 나와있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이쪽에는 respiration chamber이 있다. 이 chamber로 동물들이 방출하는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 크기가 다양해서 동물의 크기에 맞게 알맞은 chamber을 사용하면 된다. Chamber 내부의 공기를 압축하여 넣어서 압력이 높은 상태이다. 공기가 빠져나가면 같은 양의 공기가 방에 채워지는 형식이다. 이 방에서 나가는 기체와 방으로 들어오는 기체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어서 동물들이 사용

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기는 O2(산소), CO2(이산화탄소), CH4(메탄가스)를 측정한다. 기후를 조절하는 기계도 포함되어 있다.



▲chamber의 원리를 설명하는 판넬

예전에 비해서 chamber에서 동물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있는 것은 창문이다. 동물이 다른 chamber에 있는 동물을 투명한 유리로 된 벽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이 다른 동물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이 혼자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이전에 사용하던 chamber는 연구자가 안쪽을 보기 위해 있는 작은 창이 전부였다. 그에 비해 지금 이 chamber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동물도 사람/동물을 볼 수 있으며 연구자 또한 동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동물이 빛도 안 들어오는 어두운 chamber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발전된 형태이다. 또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안에 들어있는 동물을 살리기 위해 한계점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작은 창이 열리는 장치가 있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공기가 순환하도록 하여 동물이 죽지 않도록 한다. Chamber 안쪽을 보면 땅에 고정된 쇠기둥이 있다. 동물이 기계안에서 정해진 공간에 있도록 한 것이다. Chamber 안에 내부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와 카메라가 있다. 카메라로 24시간동안 동물을 사무실에서 관찰할 수 있다. 사람이 자주 방문하여 동물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것보다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덜하다.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연구하는 동안 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chamber에서 한 것은 1. 넓은 창문 2. 함께하는 동동물 있는 것(동물을 한 개체만 고립시키지 않는 것) 3. 하루 빛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낮시간에 빛을 주고 밤에는 어둠을 주는 것 아침에 서서히 빛을 주고 저녁에 서서히 빛을 없앤다.) 4.바닥이 고무매트로 되어있어 그냥 바닥에 눕지 않게 한다. 5. 스피커가 있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뭘 좋아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라디오를 틀어 놓으면 좋아하는 것 같다.

Chamber에 있는 것 자체가 동물복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물을 chamber에 넣어 놓을 수는 없다. Chamber에 동물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기간은 오직 2일뿐이다. 당연히 Chamber에 동물을 넣기 위해서는 스위스 당국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Chamber 안을 가스가 압축된 상태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공간이 꽤 넓다. 동물들이 이 공간을 걸어 다니면 기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한다.

이곳은 새로 만들어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의 모습이 일반적인 농장과 같은 아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동물복지 레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데릭하우스의 경우 이 곳에서 본 것과 보통의 농장이 거의 같다.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과 먹는 공간이 구분된 것은 대부분의 농장이 그렇다.

5) 케임브리지 대학 도널드 브룸 교수

1월 21일 케임브리지 대학 캐서린 college

동물행동학 도널드 브룸(Donald M.Broom) 교수님 인터뷰

▲케임브리지 동물행동학 도널드 브룸 교수님.

브룸 교수님은 현재 은퇴해 정규 강의는 하지 않지만 소규모 강의를 감독, 도와주며 연구하고 있다. 동물복지의 세계 최고 권위자를 찾아가, 우리나라 축산체계의 문제점을 알아낸다. 앞서 다녀온 독일,

스위스에서 한 활동을 기반으로 교수님께 인터뷰하고 코멘트를 받아 실천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점을 알아본다.

실제 현장뿐만 아니라 이론적, 체제적 방면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활동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장식 축산의 폐해에 대해 더 세세하게 알고 동물복지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지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Q.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동물들의 먹이에 신경 쓰고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동물의 먹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소들은 원래 자연적으로는 식물의 잎을 먹습니다. 현대 소들의 조상들은 바닥에 깔린 풀이나 shrub(키가 작고 덤불을 이루는 나무) 뿐만 아니라 나뭇잎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소들은 오직 밑부분에 있는 풀만 먹고 농장의 먹이도 바닥에 제공됩니다. 이는 사실 소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양한 식물과 먹이를 제공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 모든 영양소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한 가지 식물만 제공하면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소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를 사육합니다. 소들은 풀을 먹는 것에 적응됐지만 사람들은 소들에게 맞지 않는 콩이나 곡물을 먹입니다.

사람의 경우 콩이나 곡물을 잘 먹지만 풀(자연 상태의 풀)은 잘 먹지 못 합니다. 우리는 풀을 먹는데 적응하지 못 했습니다. 반대로 소는 곡물이나 콩이 아닌 풀을 먹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축산 농가는 더 많은 우유를 얻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곡물이나 콩을 먹입니다. 소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이는 거죠. 우리는 동물에게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소에게 곡물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에게 곡물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소에게 곡물을 먹이는 것은 매우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에게 많은 곡물을 먹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들이 곡물을 많이 먹으면 자연적인 식단이 아닌 인위적인 식단이기 때문에 몸에 가스가 많이 생기고 체내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는 소에게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또한 곡물을 많이 먹고 살이 쪄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소들은 발의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소들은 제대로 걷지 못 합니다. 소에게 잘못된 식단을 먹이면서 복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들에게 너무 많은 곡물을 먹이면 안 됩니다.

Q.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농장들이 공장식 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국에서 찾아가 본 자유 방목 목장에서도 소규모 목장의 판로문제와 제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공장식 축산은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선 먹이가 동물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축산 농가는 우유, 고기, 달걀 등 많은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동물들을 빠르게 성장시키려 합니다. 많은 양의 축산

품을 생산하기 위해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고 먹이는데 특히 곡물을 많이 먹입니다. 이는 소의 정상적인 소화를 방해합니다. 소들은 스스로 소화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여러 식물에 포함된 미생물로 소화를 합니다. 하지만 곡물만으로 이루어진 시단이 이를 방해합니다.

축산 농가가 가능한 한 많은 고기를 생산하려 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동물의 특정 부위만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특정 부위의 고기가 있습니다. 닭을 예로 들면 사람들은 가능한 많은 닭고기를 생산하려 하는데 특히 가장 가치 있는 부위는 닭가슴살이어서 닭이 큰 가슴 근육을 갖길 원합니다. 원래 닭의 가슴 근육은 나는 데 사용되지만 공장식 축산의 닭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날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근육을 키우는데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아 모든 근육이 적절하게 발달하면 새에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슴 근육은 발달하는 반면 다리 근육은 발달하지 못 해 닭들은 다리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동물들이 다리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장식 축산은 동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문제가 소비자에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투여받은 호르몬이 닭고기에 남아 소비자가 고기를 먹으면 호르몬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체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변화는 호르몬이 남성의 몸에 들어갔을 때 생식력을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사전에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이는 소비자나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에 호르몬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이전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고기의 호르몬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 했습니다.

동물의 질병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플루엔자가 대표적인데 인플루엔자는 다른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전염됩니다.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질병을 유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관리해야 하고 이는 농장복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여러 문제는 사람에게도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동물들에게 호르몬을 투여하지 못 하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동물복지는 동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동물들의 복지가 나쁘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고통받는 것에 반대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농장동물복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의 태도가 자신들이 무엇을 먹는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몇몇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기도 해 최근 동물복지를 위한 채식주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들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흐름을 고려합니다. 동물복지가 지켜지지 않아 독성이 있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축산품은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복지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는 축산 기업에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좁은 사육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 해 단지 서거나 누울 수만 있는 공간을 제공해 동물을 고립시키는 것은 사회적 동물에게 해가 됩니다. 이들은 걸어 다니

거나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지 못 합니다. 따라서 좁은 공간은 어떤 동물이던지 해를 끼치고 상태를 나쁘게 합니다. 이는 동물들이 필요한 상태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돌아다니고 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좁은 사육 공간을 금지하고 있고 EU에서는 농장동물의 좁은 사육 공간은 불법입니다.

좁은 사육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장주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물복지 축산품은 어느 정도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법으로 모든 농장의 환경을 규제해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거나 불량한 먹이를 먹이지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Q. 한국에서 자유 방목 목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동물들은 실내에 있는 것보다 야외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실내에서 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보다 동물들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 직접 자연에 있는 먹이(풀)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먹이를 공급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풀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나무, 덤불을 제공하는 일이 미래에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따뜻한 국가에서 더 시행하기 쉬운데 더 많은 식물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아마도 동물들이 자유롭게 밖에서 풀뿐만 아니라 shrub(키가 작고 덤불을 이루는 나무)과 나무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때 먹이에는 독성이 없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우선 방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방목 영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작물을 기를 수 없는 언덕이나 산의 공간을 방목 영역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실내에 두는 것보다 야외에서 방목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Q. 저희가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원님께 전달해드린다고 하면,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나요?

A. 우선 유럽연합을 포함해 스위스,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에 농장동물복지와 관련한 유의미한 법이 있습니다. 좋은 법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원들이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때때로 규범을 어떻게 문서화 해야 할지 몰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작업한 것을 읽어봄으로써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장동물복지와 관련해 많은 과학적 증거와 정보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동물과 관련해서 좋은 복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정보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과학 연합회(scientific committee)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닌 과학자입니다. 그

러므로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증거가 모든 농장동물복지에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이 정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의 보고서는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 의해 제작되는데 보고서에는 동물복지를 포함한 동물 질병 등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고 이 정보는 어디에나 이용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위원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대만에서 돼지 성장촉진제 사용 여부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유럽연합 과학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를 사용했습니다.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 돼지가 공격적으로 변하는데 이를 섭취한 인간 역시 공격적으로 행동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성장촉진제를 사용해도 5% 정도의 축산품 생산을 증가시킬 뿐이었고 그래서 유럽연합은 성장촉진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자료를 읽어보고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Q. 독일 투넨에 방문했을 때 독일 정부가 투넨 연구원에서 어떤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법을 제정한다고 했다. 법을 만들기 위해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게 흥미로웠다.

A.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 정보는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연구가 논문이나 책 등으로 출판되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하는 조사 위원회나 대학이 도와야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수년 동안 동물복지와 관련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동물복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의 복지와 푸아그라 생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법을 제정하기 전에 과학적 논문, 자료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스위스의 동물복지는 자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강점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일단 말하고 싶은 것은 자연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동물에게 기능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특정 동물에 대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동물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주로 이 정보는 과학 위원회에 의해 평가돼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적 정보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를 기를 때 돼지는 그들의 많은 시간을 땅을 코로 파서 주변을 조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행동은 돼지에게 매우 중요한 행동이지만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바닥에서 돼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중요한 팔 수 있는 부드러운 바닥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는 닭은 횃대를 원합니다. 닭들은 횃대에서 무언가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렇지 못 한다면 이들의 행동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횃대는 닭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평평한 바닥만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암탉이 알을 낳을 때 이들은 둥지에서 알을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암탉은 둥지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암퇘지가 새끼 돼지를 낳을 때도 둥지를 만듭니다. 모든 암퇘지가 새끼를 낳기 전 둥지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재료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단절됐을 때 돼지의 행동은 방해받습니다. 소와 양은 출산할 때 둥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돼지와 닭은 둥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동물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영국 정부는 농장동물복지를 지원하나요?

A. 많은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동물복지법은 대부분 유럽연합 법을 따르고 법을 시행합니다. 몇몇 법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을 시행하는데는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농장주에게 돼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는 법을 시행하려면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동물복지를 확인할 추가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복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기업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한 변화에 반대하는 기업이라도 법이 이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좀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데 5% 가격이 더 든다고 가정합시다. 법으로 다 같이 바꾸면 가격이 인상합니다. 이때 법에 의해 정부가 지원해주면 소비자는 2% 오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약간의 가격 인상을 잘 인지하지 못 하고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공평하게 모든 농장주에게 같은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대중에게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알려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마켓에서 동물복지를 지키지 않은 상품을 절대 사지 않겠다고 하면 시장은 동물복지를 지키지 않은 제품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켓은 즉시 동물복지를 고려한 제품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또한 변화를 유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켓도 동물복지가 지켜지고 있는지 제품을 공급하는 농장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 뿌리와 새싹

1월 19일 호텔 근처 카페

뿌리와 새싹 Jasmina & CIWF Joyce 인터뷰

뿌리와 새싹은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구달 박사님께서 설립하신 환경 단체이다. 1991년 탄자니아에서 16명의 젊은이가 모여 시작된 환경운동 프로그램인 뿌리와 새싹은 현재는 136개국의 수십만 개의 모임이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뿌리와 새싹은 동물, 환경, 이웃이라는 세 가지의 테마 중 가장 관심이 깊은 대상을 최소 한 가지 선택하여 개성 있는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100개 이상의 소모임이 만들어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뿌리와 새싹에 농장 동물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컨택을 했더니, CIWF라는 단체와 연결시켜 주었다. CIWF는 Compassion In World Farming의 줄임말로, 동물 복지와 관련된 캠페인 활동 및 정치적 압력을 담당하는 단체이다. 동물 수출, 특정 방식의 가축 도축 방법, 그리고 공장식 축산의 모든 시스템에 반대하는 캠페인들을 진행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자라서 세계 각지에서 동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이다. 동물 복지와 관련된 환경 단체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Q. CIWF는 농장 동물 복지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나요?

A. CIWF는 정부와 World Bank,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농장 동물들에게 행해지는 잔인한 행위들을 금지하도록 정치적 압박을 넣는 일을 담당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캠페인을 열고, (경찰에게 미리 알린 후에)평화로운 시위를 열고, SNS 활동도 진행한다. 또한, 음식 소매업자들과 공급자들에게 동물 복지 기준을 올리라고 설득하는 Food Business 부서도 있다. 닭장에만 갇혀서 알을 낳는 닭들의 달걀을 파는 것을 거부하는 회사들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Q.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정부나 시민들의 협력이 있나요?

A. 정부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는다 – 사실 정부는 우리의 캠페인들의 타겟에 가깝다!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은 정기 후원을 하는 지지자들이나 돌아가신 후 유서에 우리에게 돈을 남기겠다고 쓴 분들의 유산을 통해 받는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지지하는 금융 기구들에서 돈을 받기도 한다.

Q.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종종 공장식 축산을 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고는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괜찮다.

Q. 영국과 다른 나라의 동물보호법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영국의 첫 동물 보호법은 거의 200년이나 전에 통과되었다! 반려동물부터 실험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법들이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EU가 새로운 법들을 채택하도록 하는 데에 힘썼다. 그래서 현재 송아지를 좁은 상자에 방치하는 것, 임신한 돼지를 좁은 우리에 방치하는 것, 닭을 척박한 배터리 케이지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EU의 법들이 생겨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들이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EU가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Full text of Article 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2009), part of the Lisbon Treaty: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Union's agriculture, fisheries, transport, internal market,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pace policies,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since animals are sentient beings, pay full regard to the welfare requirements of animals, while respecting the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and custom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in particular to religious rites, cultural traditions and regional heritage."

Q. 한국에 있는 많은 농가들은 여전히 공장식 축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공장식 축산은 동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공장식 축산에서는 종종 콩과 같은 먹이를 주는데, 이는 열대 우림 파괴를 초래한다. 또한 여기서 배출되는 배설물들은 근처 강과 바다를 오염시킨다.

Q. 농장 동물 복지 문제와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사진들과 영화들을 보고 움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조차 보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정형화되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 논지들에 설득되기도 한다. SNS를 포함한 미디어들을 최대한 모든 방향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 연예인들이 돕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학교들에게 어린이용 자료들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농장 동물들이 지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관련된 논지에 설득된다. 너무 많은 고기는 당신에게 좋지 않다. 이것에 대한 연구 자료도 많다. 종교 관련 기관과 리더들이 당신을 돕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Q. 협력적인 구조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당신이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농장 동물 복지에 대해 많은 자료들을 읽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라. 많은 정보들을 보유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최대로 사용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농장주들을 절대 비난하지 말아라(고소할 수도 있다!). 동물과 환경에게 좋지 못한 시스템 자체를 비난하라. 우리 사이트를 보며 연구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https://www.ciwf.org.uk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있다.

III. 결론

임유나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후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인식의 심각성을 느꼈다. 농장동물은 생명체가 아닌 단순히 고기라는 인식이 만연했으며 관심도 부족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열악한 농장동물복지는 지금까지도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기를 빠르고 많이 생산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은 동물들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행동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동물의 이상행동 그리고 질병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항생제와 호르몬, 살충제 등 화학 약품이 사용됐다. 이러한 화학 약품은 그대로 동물에 흡수됐고 그 고기를 먹은 인간 역시 화학 약품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매년 구제역과 조류 독감이 일어나고 2017년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발생하며 축산 질병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농장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인 생활과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우리 삶의 질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농장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본 탐사팀은 사람들의 인식 부족과 열악한 법으로 인한 지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농장동물복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실행되어 왔고 그만큼 발달한 독일, 스위스, 영국의 관련 기관을 방문해 문제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각 기관을 방문했을 때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농장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농장이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방문한 농장에는 연구기관이 꼭 함께 있었다. 이들은 농장동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고 환경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동물들의 먹이가 무엇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식물들을 시도해보고 동물의 메탄 가스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을 연구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각 실험을 할 때도 동물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불편해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장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은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농장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던 실제적인 요인은 법이었다. 각 나라의 법은 농장동물복지를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있었고 법 제정은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실제 농장동물복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법을 만들어 정책자들은 알 수 없는 동물의 생태나 행동 등의 지식을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자와 연구자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 작용이 인상 깊

었다.

세 국가의 기관을 방문하며 넓은 농장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동물의 몸에 딱 맞는 우리와 다른 모습이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편 동물복지에 대한 이슈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고 동물을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동물복지에 완전히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농장동물의 복지가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안지현

요즘 마트에 가보면 동물복지라벨이 붙어있는 달걀을 종종 볼 수 있다. 아직은 사람들이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단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동물복지 축산물을 원한다면 더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달걀 뿐이지만 점차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등으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본 탐사팀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부합하여 한국에 맞는 농장동물은 무엇일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탐사를 다니면서 농장동물복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차이를 많이 느꼈고 경험하였다. 일단 한국에 비해 자신이 먹는 것 먹는 고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본 탐사팀이 방문한 농장의 경우 모두 농장동물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었는데 농장동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다. 본 탐사팀이 방문한 연구기관에서는 소의 뿔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와 소의 뿔을 제거하였을 때의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중이었다. 동물을 최대한 그들의 모습대로 살게 하려는 사람들의 인식이 돋보이는 연구였다. 동물이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농장에서는 동물들이 먹는 음식에 따른 동물들의 건강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중이었다. 흔히 동물복지를 생각하였을 때 동물이 먹는 음식을 떠올리지는 않았는데 무엇을 먹는지가 사람의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듯이 동물에게도 먹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물복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환경적인 측면의 연구도 함께 진행중이었다. 동물들이 무엇을 먹었을 때 더 건강하며 더 적은 메탄가스를 방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도 있었는데 이 실험을 진행할 때 동물을 공기가 밀봉된 작은 방에 동물을 넣고 얼마나 방출하고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이 꼭 스위스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 2일 동안만 측정을 위한 연구시설에 넣어놓을 수 있으며 연구를 위해 한 마리만 고립시켜서는 안되었다. 또한 이 연구를 함으로써 동물을 연구시설에 가둬 놓는 2일 간의 동물의 고통을 감수할 만큼의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연구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동물실험을 남용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에만 진행하는 것이다. 동물복지 수준을 유기농업 단계에서 더 향상시키는 것에 더하여 가장 기초의 동물복지인 법으로 규정된 부분도 점차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가장 기초의 단계에서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결국 모든 동물들이 동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더 의미있다. 독일, 영국, 스위스에서 모두 법으로 농장동물복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법을 제정할 때 반드시 과학적인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동물 종별로 동물을 심도 있게 관찰하여 생물학적으로 동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동물에게는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가 있는데 종마다 그 욕구들이 다르다. 유럽의 국가들은 각 종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비하고자 하였다. 동물들이 농장에서 건강하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국의 법도 동물 중심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김나연

최근에 대학생 환경 동아리를 하면서, '생명 윤리는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분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름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환경을 위한 캠페인 활동들을 진행하는 동아리 부원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때 뼈저리게 깨달았다. 특히나 한국에서,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 자체에 대한 관심은 다행히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동물 복지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 버렸다. 동물 복지라는 분야는 인간이 본인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방관하거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한 운동을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탐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감동받은 부분은 동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많은 연구 기관들이 더 나은 동물 복지를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바꾸고,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다. 특히 정부에서 동물 복지를 위한 기관들을 지정하여 정책을 만드는데 직접 이용하는 것을 볼 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유기동물, 농장동물 등 동물들을 위한 광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농장 동물을 위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 단체, 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볼 수 있었다. 스위스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는 미그로는 아예 동물 복지 부서를 따로 만들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먼 미래처럼만 느껴지는 풍경들이다.

어쩌면 이것은 투넨의 제롤드 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경제성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 탓인 것 같다. 모든 국가가 조금씩은 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CIWF와의 인터뷰에서 배운 관점이다. 우선 동물 복지 관련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이를 자신의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최대의 효율을 가질 방식으로 맞추어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아라. I would s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or you to KNOW YOUR FACTS.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 이번 탐사를 하며 다녀온 기관들에서 배운 것들은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데에 각각 큰 도움을 주었다. 직접 기관들과 컨택하고,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경험도 좋은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쪽 분야

에서 일하면서 나아갈 길, 걸어야 할 방향도 분명해진 기분이다. 이화 글로벌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하였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한국의 학생들에게, 정부에게, 시민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좋겠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 또 계속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회진

처음 탐사를 가기 전에는 우리가 방문하는 세 나라가 모두 비슷한 동물복지를 추구할 줄 알았었다. 때문에 방문 이전에는 세 나라의 공통점을 찾으려 애쓰며 동물복지 형태를 읽어보았지만 겪어보니 세 나라가 모두 다르게 동물들의 복지를 지켜나가고 있었다. 나에겐 이 점이 매우 흥미로웠고 탐사를 하며 각 나라의 특징과 차이점에 집중하게 되었다. 서로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해 교류하고 있긴 했지만 정말 다른 생각과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게는 희소식이나 마찬가지이다. 여러 형태를 가진 동물복지 체제가 여러 나라에서 형성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경우에 맞는 동물복지 체제를 유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탐사목적은 배우고 알리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선진적인 기술을, 스위스에서는 자연환경과 그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법을, 영국에서는 법률과 동물 행동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세 국가에서 배운 조금은 다른 동물복지 방법을 조합하자면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인력의 수요를 최저한으로 만들어라. 인간은 귀찮은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무조건 귀찮음을 감수하고서 동물복지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별로 좋은 동물복지 방법이 아니다. 동물복지가 공장식 축산보다 귀찮다 라는 공식을 없앤다면 동물복지에 커다란 힘이 되리라. 심지어 인력을 줄이고 귀찮음을 줄인다면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농업인들이 동물복지농장을 경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둘째, 동물들이 지낼 수 있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라. 가축들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넓고 트인 공간과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 등 가축들이 각 용도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과 밖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동물들에게도 용도별로 나뉘어진 공간이 필요하다. 셋째, 이를 지속해 낼 법률을 제정하라. 동물복지를 지속하는 것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법은 강제성을 지니며 사회적 약속이다. 사람들의 의지를 표방하게 된다. 결국 법은 시민들의 의지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생산자에게 소비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생산자가 법을 어긴다면 소비자는 크게 분노할 것이다. 소비자는 경제시장에서 권력을 가진 주체이기에 생산자는 이에 반박할 수 없게 된다. 법이 제정되는 것만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이 셋 중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뤄질 수 있다면, 동물들의 복지가 보장된 나라로 변천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스위스 그리고 영국을 돌아보며 '나에게 동물복지란?'에 대한 대답의 윤곽을 잡아갔다. 처음방문지로 독일의 한 연구소인 투넨을 방문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계속 동물복지의 범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 속에서 발전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에게 동물복지의 범주는 어떻게 될까, 유럽권 국가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라는 물음이 샘솟았다. 동물복지에 대해 아예 무지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일년 간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동물이 만들어낸 생산품 자체를 이용하면 안된다. 또는 오히려 동물들의 복지가 보장된 곳에서 건전하게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이용해야 동물들의 복지신장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등의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동물복지의 범주를 맞추어 나갈까 기대를 하게 된다.